

성도의 교제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환영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시고, 신앙 생활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알림

- 1. 오늘 실만한물가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주일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2. 2025 년에 온 성도님들이 함께 잃은 양 찾기 운동에 참여합니다.
실천사항 1: 잃은 양을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실천사항 2: 잃은 양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소개합니다.
- 3. 지난 주일에 폭설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에 참석해 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4. 온라인 새벽 예배가 진행 중입니다. 매주 화, 수, 금 오전 6시 YouTube (신명기)
- 5. 2024 년 헌금 영수증을 준비되었습니다.
- 6. 요엘 2 장 13 절 (2025 년 2 월 성경 암송 구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 7. 실만한 물가 교회 헌금 안내입니다.
Cheque Pay to: The Refreshing Church
E-Transfer: rwgchurch@outlook.com

실만한물가교회 연락처

E-mail: rwgchurch@outlook.com

Homepage: rwgchurch.ca

Tel.: 647-989-2546

Address: 2630 Inlake Court, Mississauga, ON L5N 2A7

실만한 물가 교회 QR Code Scan

홈페이지



YouTube 채널



목요성경공부



카카오채널



대한예수교장로회
실만한물가교회
The Refreshing Watered Garden Church

주일 예배	오후 1:30	인도: 김윤규 목사
목도 Choral Prelude		다함께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기원 Invocation		인도자
*찬송 Hymn	21 장 (통 21)	다함께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다함께
*교독문 Responsive Reading	73. 이사야 65 장	다함께
찬양과 경배 Praise and Worship	찬 391 / 390 장	다함께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봉헌 및 기도 Offering & Prayer	429 장 (통 489)	다함께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요엘(Joel) 2:21-24 (p. 1272)	인도자
설교 Sermon		김윤규 목사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 Rejoice before God		
*찬 송 Hymn	384 장 (통 434)	다함께
*축 도 Benediction		김윤규 목사

*는 일어섭니다

초대 교회의 신앙으로 세워가는 교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롬 5: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 말씀 노트 ||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

(욘 2:21)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라 (욘 2:22) 들짐승들이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욘 2:23) 시온의 자녀들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롬 1:21)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롬 2:5)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욘 2:23) ...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욘 2:24)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니

(신 11:13)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신 11:14)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 목회와 삶 || 하나님, 주일에 눈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에 함께 공동체로 모이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우리가 지성소(the Most Holy place)에 들어갈 담대한 마음을 가졌음으로 흔들림 없는 소망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합니다(히 10:19-25).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교회 공동체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이기 때문입니다(행 2:46). 하지만 이러한 모습이 형식화 되어서 모든 상황과 환경적인 문제와 관계없이 고정화 되어 주일 예배의 본질을 흩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가로질러 지나가다가 밀의 낱알을 손으로 훑어 먹는 사건으로 인해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논쟁을 할 때 예수님께서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막 2:27; *Translated by YG Kim*)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안식일보다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주일의 형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주일의 형식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본질을 삼켜 버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올해에는 토론토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데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의 은혜로 날마다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막 3:4) 그리고 그(예수)가 그들에게 말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느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느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Translated by YG Kim*)